

독도, 우리의 유산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북일고등학교
동아리(팀)명	LUCETE ONE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LUCETE ONE’은 북일고등학교의 역사 외교 동아리 LUCETE의 1학년 부원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밝게 빛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LUCETE의 의미를 따라 ‘자신의 꿈, 미래, 학창 시절을 빛내기 위해 동아리원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UCETE ONE’은 역사, 외교 뿐 아니라 본인이 꿈꾸고 있는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를 동아리 차원에서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융합형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UCETE ONE’의 주요 활동으로

첫째, ‘독도체험발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도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도관련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독립기념관 독도학교에 참가한 후 독도를 탐방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와 자료집을 제작하여 독도를 널리 홍보하는 ‘독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치, 법, 외교, 역사, 언론,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진로로 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 맞게 융합학문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One Topic Symposium’을 개최하는데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언론, 영상편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LUCETE 공식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하여 ‘역사 팩트체크, 과연 그럴까?’ 등 독도문제와 역사, 외교, 그 밖의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와 관련한 영상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넷째, 독도문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해외 교류 심포지엄인 HRSY와 연계하고, 유튜브 영상과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경기외고, 한영외고, 세화고 등 전국에 소재한 특목고, 자사고가 모여 하나의 언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학교, 시사, 사회 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참여 언론 협의회’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독도문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전국 최대의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 YUPAD 활동에도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북일고등학교의 역사 외교 동아리 ‘LUCETE’는 교내 동아리 관련 각종 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우수한 학술동아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 부원들은 ‘LUCETE ONE’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여 선배들의 업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LUCETE ONE’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역사 외교 동아리 ‘LUCETE’의 지도교사로 북일고 역사 교과와 1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미희 선생님입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신혜성	1	외교 분야 보고서 제작 및 활동 참여
2	이종후	1	법 분야 보고서 제작 및 활동 참여
3	이준호	1	정치 분야 보고서 제작 및 활동 참여
4	홍승혁	1	역사 분야 보고서 제작 및 활동 참여
5	노성민	1	경제 분야 보고서 제작 및 활동 참여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다방면으로 바라본 우리 땅 독도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가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저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이유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독도를 바라보고, 외교적, 정치적, 법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통해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선정했다.

○ 활동 기간 : 5월 20일 ~ 7월 31일

○ 추진 방법 : 독도의 역사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도이야기' 강의에 참여했다. 또한 독도를 더 상세히 알아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역량을 쌓기 위해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는 독도학교에 참가했다. 실질적으로 독도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독도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의 진로에 맞게 독도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여러 가지 시점으로 바라본 독도'라는 주제로 독도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30일	초청 특강 : '독도이야기'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윤소영 학술연구팀장)	북일고 아단관	동아시아 영토갈등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독도의 위치, 역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6월 20일	독도학교 프로그램 참가	독립기념관	지도와 고문서 등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며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생각해봄. 전시관을 탐방하며 일제 침략과정과 독도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함. 교구를 활용하여 독도의 식물, 동물 등 자연을 탐구하고 온실로 이동하여 독도에 서식하는 섬기린초를 화분에 옮겨심고, 직접 키워보며 독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 27일	독도 포스터 제작, 홍보활동	북일고	HRSY(Humanities Research Symposium for Youths : 한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4개국 학생들이 인문, 사회 분야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매년 포럼 주최국에 모여 영어로 발표)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친구들에게 독도 문제를 소개해 주고자 독도 포스터를 제작하고, 포스터 게시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 23일 ~7월 31일	독도 보고서 작성	개인	독도 문제를 각자 진로에 맞게 외교, 역사, 정치, 법, 경제의 부분으로 바라본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독도 수호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활동이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여러 가지 분야로 살펴본 독도	보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를 주제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제작
2	독도학교 참가 사진	사진	독도학교 증빙자료
3	독도 포스터	사진	해외친구를 위한 포스터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전국 중고등학생 독도체험 발표대회를 진행하면서 LUCETE ONE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각자 진로에 맞는 주제인 법(이종후), 역사(홍승혁), 정치(이준호), 경제(노성민), 외교(신혜성) 등 다방면으로 독도를 간접적으로 탐방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도학교에 가보면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HRSY를 위한 독도 포스터 제작으로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가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퍼트릴 수 있었다.

○ **향후 계획** 10월 25일 있을 독도의 날에 맞춰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자세하게 적은 후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촉구를 위한 손글씨를 적어 여러 친구에게 퍼뜨려 독도의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 국민이 독도 수호를 위해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독도 박물관에 가서 독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향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 독도에 가봄으로써 우리의 독도체험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신혜성	나의 진로를 외교관으로 정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독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관심사에 맞는 활동들을 주로 하며 나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독도의 증거가 되는 사료들을 직접 보고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종후	그동안 꾸준히 들어온 독도 관련 강의는 귀에는 익숙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낯선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진행한 독도 관련 활동들은 나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독도에 대한 인식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번 대회를 준비 하면서 그에 대한 첫걸음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노력과 열정으로 앞으로 독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
이준호	한 번 배우고 넘어가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꾸준히 독도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근거자료가 여전히 기억난다. 게다가 우리 모두의 꿈과 연관 지어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잊지 못할 거 같다.
홍승혁	전에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잘 느끼지 못했다. 아직 내가 독도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던 좋은 활동이었다.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역량을 다질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느꼈다.
노성민	독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독도를 왜 지켜야 하고 왜 소중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좇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5. 건의사항

○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홍보 적인 측면인데, 요즘 독도에 대한 캠페인이나 플래시몹 추기와 같은 홍보 활동들이 소규모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미래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져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은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